

#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mother-adolescent conflict

구미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김수연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정문자

Dept. of Early Child Education, Kumi College

lecturer: Kim, Su Yeo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 Moon Ja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ables that influence mother-adolescent conflict. Independent variables were adolescent's physical maturation, mother's self-esteem, an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was low in general, but high in homework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no sex difference was found in the degree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Third, the mother-adolescent conflic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of adolescent's physical maturation and mother's self-esteem. However, mother-adolescent conflic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ttern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eaning that the more open th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was, the less conflict was found between them.

## I. 서론

청소년기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완수하여야 하고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적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청소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는데, 청소년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첫 번째 경향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 발달적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개체발달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 경향은 청소년의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 범주, 하위 문화, 세대 관계, 청소년 운동 등을 기술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개인이나 청소년이 속한 환경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인간 발달에 대한 전생애적 관점과 생태학 이론이 대두되면서 인간 발달은 개인적 발달이나 환경의 영향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맥락 중에서도 가족은 생애 초기부터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련되므로 청소년 개인의 발달을 연구함에 있어 가족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Petersen, 1988).

한편, 청소년기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가족 관계의 평등화로 가족의 가치 체계가 다양화되고 이질화되

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 가족은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 형태로 변화했으면서도 가부장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가족 성원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김양희, 1986).

가족의 생활주기를 고려할 때, 부모와 청소년간의 의견과 가치관 대립으로 갈등이 빈번해짐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가족 불일치가 청소년 초기에 어느 정도 증가하며, 부모-청소년간의 갈등 수준은 가족에 따라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20%가 서로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또다른 20%는 관계상의 문제가 간헐적임을 지적하였다(Montemayor, 1986). 또한 오늘날의 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 우울, 자살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저항, 학업성적이나 성취도 평가와 같은 학업에 관한 도전, 흡연, 원하지 않은 임신, 약물이나 음주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Barber, 1994).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결과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심각한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많은 청소년들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청소년간의 갈등은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있는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부모와 청소년간의 갈등을 탐구함에 있어, 갈등의 주제, 빈도, 그리고 강도와 특정 갈등 상황의 시기 등 기본적인 갈등 현상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부모-청소년간 갈등의 원인이나 관련 변인의 탐색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가족간의 갈등에 관련된 가족 성원의 특성이나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족내 부모-청소년간의 갈등 정도의 차이와 특징을 분명히 밝히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갈등을 연구함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 가족내의 맥락적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12, 13세에서 18세까지로 볼 때, 청소년기 초기에 특히 부모-자녀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이주옥, 1993).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과도기적 시기로 보아 청소년기 초기의 가족 역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과해왔으며, 청소년 초기와 중기를 묶어서 연구했기 때문에 청소년 초기의 가족 역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최근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김경숙, 1987). 따라서,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관계가 과도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 초기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 갈등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와 양육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와의 갈등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정도와 가족 내의 개인적·맥락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청소년기 전환으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 나라 가족내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종류와 정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지각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 1)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는 어머니-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가?
  - 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가?
  - 3)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이들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정의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대해 이주옥(1993)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상처되는 가정 내의 위치와 견해, 그리고 이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충돌로 규정지으면서 이러한 갈등에는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 등 외현적인 행동에서부터 내적 긴장감까지를 포함시켰다. Montemayor(1982)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을 청소년 또는 부모가 유발하며,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청소년과 부모가 화가나 서로 논쟁을 하거나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을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서로 불일치한 의견이나 견해로 인해 일어나는 논쟁 등의 외현적 행동과 내적인 긴장감을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재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2.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 1) 청소년 시기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갈등

선행연구에서는 사춘기로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며, 이는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ilverberg & Steinberg, 1990). 즉, 청소년기로의 진입 시기에는 청소년이 접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변화가 증가한다. 이는 중학교시기에 최고조에 이르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활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높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수준에 놓이게 한다. Stattin과 Klackenberg(1992)는 청소년 시기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종단 연구를 한 결과, 자녀 출생 초기에 가족간 불일치 정도가 높은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간 불일치 정도가 점차 증가하며, 어머니-자녀간 불일치는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고조됨을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을 보고하는 등 적응상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모-청소년 갈등

의 증가 및 어머니의 권력 상실과 청소년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가 청소년기 초기에 일어남을 시사하고 있음(김경숙, 1987; Montemayor, 1986; Steinberg, 1988)을 볼 때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영역

갈등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족 갈등이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됨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모-청소년간의 논쟁은 주로 학교성적, 사회생활, 친구 관계, 가사일, 용돈 사용, 귀가시간, 여가시간 사용, 부모에 대한 불복종, 형제와의 갈등 및 청결 문제 등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가족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이주옥, 1993).

Ellis-Schwabe와 Thornburg(1986)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765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영역의 가족갈등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의 갈등이 가사에 대한 조력과 용돈 사용의 영역에서 가장 우세하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빈번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의 역할 기대를 조사한 한남제(1984)는 학업성적, 가사 조력, 귀가 시간, 용돈 사용, 교우 관계, 옷차림, 야간 외출 등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충돌이 빈번함을 보고 하면서 갈등 영역이 미국의 경우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자, 부녀, 모자간의 주된 갈등 영역이 학업성적인 반면, 모녀간의 갈등은 주로 가사 조력과 관련되었다.

## 3) 어머니-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기에 가정이라는 소단위의 사회 체계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역할과 문화적 수준 등 가정의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의 의식, 부모의 자녀 양육, 부모의 가치관 등의 과정적 요인도 청소년의 성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정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문자, 정현숙, 1994). 특히 여러 과정적 요인 중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롭고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나이차, 권위 문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가족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으므로 청소년기 가족내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숙한 의사소통과 부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이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며 이의 끊임없는 반복을 초래함을 지적하고 있다(노성향, 1994).

## 4) 어머니-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청소년기에는 신체 및 운동 기능이 급속도로 발달되며, 내분비선의 발달로 2차 성징이 나타나 남·여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생물학적 변화는 시작과 시기, 기간이 각각 다르며, 이러한 변화가 인정되며 수용되는 정도가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심리적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자녀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Brooks-Gun & Petersen, 1984).

청소년기 초기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Steinberg(1981)는 청소년의 사춘기 성숙도가 특정 유형의 가족 문제 출현뿐 아니라 가족 갈등의 강화와 관련됨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사춘기 중기에는 사춘기 전기나 사춘기 후기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갈등이 많고, 성숙이 늦은 소년은 성숙이 빠른 소년보다 부모를 더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인지하며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사춘기 지위와 사춘기 시기가 부모와 청소년간의 상호작용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예를 들면, Hill과 그의 동료들(1985a, 1985b)은 13세 남아 100명과 여아 10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성숙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조숙한 청소년 남아의 경우 허용적인 가족 관계를 가지며, 만숙할수록 자율성 욕구가 높고 부모의 통제에 대해 더 민감하며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반면 청소년 여아는 조숙할수록 부모의 제한과 통제가 커짐을 민감하게 느끼며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0세에서 17세 남녀 청소년과 부모 133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Savin-Williams와 Small (1986)은 청소년의 성숙 정도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체계적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5) 어머니-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생의 발달 단계 중 성인기 후반에서 중년기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어머니는 본인의 신체적 변화 외에 자녀의 교육과 독립, 남편의 직장에서의 지위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가치감과 자존감을 재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중년기 여성의 가치감과 자존감은 가정에 헌신한 자신의 역할 수행을 자녀와 남편의 성공에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녀, 남편, 그리고 자신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역할 기능 부족으로 돌려 죄책감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중년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청소년 갈등의 원인에 대해 Montemayor (1983)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업과 결혼에 있어서 중년기에 미결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부분적으로는 어머니-청소년 간의 갈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청소년이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청소년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으며 어머니-청소년 상호작용이 가족의 순환 체계 내에 청소년을 붙잡아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

울하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이 정상적인 어머니보다 자녀와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Griest, Forehand, Wells, & McMahon, 1980).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만성적인 인성 장애나 어려운 생활 환경, 낮은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문제를 가진 어머니들에게 공통적임을 암시하며, 이런 특징을 가진 어머니들이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 놓일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며 부부가 초혼이고 중류층에 속하며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어머니 199명과 이들의 중학교 2학년생 자녀 199명이다. 조사 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1개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40명과 그들의 부모 4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중 연구대상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아동학 전문가 2명에게 의뢰하여 안면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3개교 총 8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1996년 9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배부된 총 360부의 질문지 중 27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5.6%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73부를 제외하여 총 199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론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청소년의 성숙도

청소년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Steinberg와 Hill (1978)이 사용한 신체성숙도척도(Physical Maturation Scale: PM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성숙도척도(PMS)는 청소년의 외형적인 신체 성숙 수준을 제 3자가 평정하는 것으로서, 남녀별 각각 4문항으로 청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 = 199)

변인	구분	빈도 (%)	
청소년	성별	남자	103 (51.8)
		여자	96 (48.2)
	형제수	1명	22 (11.1)
		2명	146 (73.4)
		3명	28 (14.1)
		4명	3 (1.5)
	출생순위	첫째	107 (53.8)
		둘째	80 (40.2)
셋째		11 (5.5)	
넷째		1 (0.5)	
어머니	연령	34 - 37세	23 (11.6)
		38 - 41세	102 (51.3)
		42 - 45세	65 (32.7)
		46 - 50세	6 (3.0)
		무응답	3 (1.5)
	취업상태	비취업	143 (71.9)
		취업	56 (28.1)
	교육수준	고졸	99 (49.7)
		전문대졸	8 (4.0)
		대학졸	84 (42.2)
대학원 이상		7 (3.5)	
	무응답	1 (0.5)	
아버지	직업	판매 서비스직	7 (3.5)
		사무직	28 (14.1)
		관리직	75 (37.9)
		전문직	80 (40.4)
		고위 관리직	8 (4.0)
		무응답	1 (0.1)
	교육수준	고졸	56 (28.1)
		전문대졸	10 (5.0)
		대학졸	106 (53.3)
		대학원 이상	27 (13.6)
	가족수입	150-200만원	69 (34.7)
		201-300만원	67 (33.7)
		301-400만원	31 (15.6)
401만원이상		24 (12.0)	
무응답		8 (4.0)	

소년의 얼굴 모양, 신체 비율, 신체협응, 전체 성숙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  $\alpha = .75$ 이었다.

### 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소연(1993)의 자기지각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지각 측정도구는 응답자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4점척도로 평정하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 3)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Barnes(1982)의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일부를 노성향(1994)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는 5점척도이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 4)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rintz와 그의 동료들(1979)의 문제항목조사지(Issues Checklist: IC)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항목조사지(IC)는 가족 갈등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4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갈등적 문제의 영역화 및 청소년기 갈등적 가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변인 연구에 타당도가 높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에 부적합한 문항(약물 사용, 성관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14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측정 도구는 5점척도이며,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3. 자료 분석

연구 대상의 인구론적 특성과 어머니-청소년간의 갈등,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청소년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청소년간의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종류와 정도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갈등내용 문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 참조>. 각 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숙제나 학교 성적에 대한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이나 청결 문제에 대한 갈등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갈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별 빈도 및 점수 범위를 구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점수의 평균은 20.09점이었고 표준편차는 9.0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는데, 가능한 점수 범위(0점-56점)를 고려하면 본 결과에서는 대체로 어머니와의 갈등이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차이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정도는 남아(M=20.87)와 여아(M=19.22)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0). 즉, 청소년 남자와 청소년 여아는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갈등

<표 2>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 = 199)

문항	M'	SD
1. 친구와 전화하는 것	1.35	1.13
2. 귀가 시간(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	1.37	1.19
3. 내가 쓰는 방 청소하는 것	1.88	1.15
4.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시간 보내는 것	1.63	1.14
5. 용돈 사용하는 것	1.17	1.16
6.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1.22	1.17
7. 숙제나 학교 성적	2.12	1.08
8. 집안 일을 돕거나 집안 일에 참여하는 것	1.15	1.09
9. 텔레비전 보는 것 또는 라디오 듣는 것	1.80	1.33
10.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1.57	1.27
11. 행동이나 성격 문제	1.33	1.16
12. 건강이나 청결 문제	.91	.99
13.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	1.43	1.18
14. 친구를 사귀는 것	1.14	1.09

\* 문항별 점수범위 0 - 4점

<표 3>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점수별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99)

점수 범위	빈도 (%)
1-10	32 (16.1)
11-20	72 (36.2)
21-30	67 (33.7)
31-40	24 (12.1)
41-50	4 ( 2.0)
평균	20.09
표준편차	9.01
가능한 점수 범위	0-56

정도를 비슷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의 관계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점수 수준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 별로 평균, 표준편

차, 점수별 분포 및 점수 범위를 구하였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독립 변인들의 점수별 빈도,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99)

변 인	점수 범위	빈 도 (%)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4-8	18 ( 9.0)
	9-12	61 (30.7)
	13-16	81 (40.7)
	17-20	39 (19.6)
	평균	13.11
	표준편차	3.49
	가능한 점수 범위	4-2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35-44	6 ( 3.0)
	45-54	62 (31.2)
	55-64	93 (46.7)
	65-74	38 (19.1)
	평균	57.47
	표준편차	7.39
	가능한 점수 범위	20-80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35-44	6 ( 3.0)
	45-54	18 ( 9.0)
	55-64	62 (31.2)
	65-74	59 (29.6)
	75-84	38 (19.1)
	85-96	16 ( 8.0)
	평균	67.21
	표준편차	11.56
	가능한 점수 범위	20-100

#### 1)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표 4>에 의하면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는 평균이 13.11이었고 표준편차는 3.49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가 4-20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연구 대상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사춘기 중기 정도의 성숙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숙 정도를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여드름이 나지 않았고 아이 티를 벗어난 편이며 팔다리가 길고 손과 발이 커서 체형이 불균형적이고 걸음 걸이나 팔다리 움직임이 다소 어색하고 아이스러우므로, 전반적으로 자녀가 신체적으로 덜 성숙해 있

고 아직 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청소년을 아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인 과도기적 상태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보고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는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신장( $r=.53$ ) 및 체중( $r=.55$ )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성숙도와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간의 관련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의 성숙도는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 ).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정도의 차이가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을 설명해 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표 4>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가능한 점수 범위가 20-80점 일 때 평균이 57.47이고 표준편차가 7.39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정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4$ ).

#### 3)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표 4>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점수 범위가 20-100점이며 평균이 67.21점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가 11.56이었다. 즉,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본인간의 의사소통을 대체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개방적인 편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8, p<.001$ ). 즉, 어머니-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에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 1.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종류와 정도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지각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숙제나 학교 성적, 방 청소하기의 2개 영역에서의 갈등이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이나 청결문제에 대한 갈등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은 학업성적에 관련된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이주옥(1993)과 한남제(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 문화적으로 성취를 우선시하는 사회이므로 학업성취가 가족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학생인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자율성을 강조하여 건강이나 청결 등의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청결에 관련된 영역의 갈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보다 낮게 갈등 정도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Montemayor(1983)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면서도 부모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속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청소년기 가족에게 있어서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기능적인 가족관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자신들의 가족내에서 불일치나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갈등과 세대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사회에서 그들을 보는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에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유사성이 크고 부모-자녀간 갈등보다 일치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Gecas & Seff, 1990).

한편, 대상 청소년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 한 것도 어머니-청소년간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가족의 관심이 학업에 집중되므로 학업이외의 사건에 관련된 부모-자녀간의 일상적인 불일치가 묵인되거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청소년의 성별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본 연구에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우세한 상황이며 어머니-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거리가 밀접한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청소년기 독립성 요구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자녀수가 적어진 관계로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남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 모두에게 청소년기의 가족 관계 변화가 가족 성원에게 위기로 느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민주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해 평등형 성역할 태도가 강조되면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성차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는 하류층보다 중류층에서 그러하므로 부모-청소년간 갈등에 있어서도 자녀의 성별이 큰 차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 3.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Steinberg(1987a)는 사춘기 성숙도가 청소년의 생물학적 연령에 속하는 변화와 독립적으로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초기와 중기, 또는 제한된 연령 범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에 따라 부모-자녀간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14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auser와 그의 동료들(1985)도 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숙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소년 초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다. 청소년은 성숙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인지적으로도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고, 가족성원들도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각 가족성원들 개인의 발달과업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의존성과 청소년기의 독립성 욕구가 공존하며 어머니도 자녀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인식적인 전환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 요구를 심각하게 지각하지도 않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아직 성인이라기보다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숙 정도를 민감하게 지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성숙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성숙도 차이가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 갈등이 가족 내의 일상적인 생활상의 문제, 청소년의 태도, 학교 성적, 형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청소년의 성숙도보다는 사회관계망의 변화와 청소년의 인지적 변화의 영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지적 변화 및 사회관계망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들이 대부분 교육정도가 높고 중류층에 속하며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높았으므로, 이러한 어머니들의 특성이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심리적 만족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중재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지각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갈등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Silverberg & Steinberg, 1987).

특히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을 하나의 '여성'이라기보다는 '어머니'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만족도나 자존감과는 별도로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년기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부모 역할 수행 부담이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된(진미정, 옥선화, 1994)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업 성취를 중시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육체적, 정신적 역할에 대한 책임과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당연한 의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존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 나라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 중심이라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훈육 방식이나 자녀 양육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정문자와 정현숙(1994)과 윤진과 최정훈(1989)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긴장이 청소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부모-청소년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기 가족 문제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단절에서 기인하고 있듯이 부모-자녀간의 불일치와 갈등도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갈등적 주제가 주로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이주옥, 1993; Ellis-Schwabe & Thornburg, 1986), 일반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이 그 매개체로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 내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 설교, 및 비판의 형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은 부모의 견해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으로는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려는 경향도 보여,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가치관과 견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그들 간의 갈등도 적으리라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 가족 내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머니-청소년 간의 갈등에 있어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관계적인 특성이 더 중요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 사회에서 청소년기 가족의 갈등적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바꾸고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예방책으로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PET의 반영적 경청이나 전달법 및 STEP의 기법을 응용하여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원리와 기술을 부모에게 가르침으로써 부모의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상담과 치료에서 사용되는 제 기법과 자아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청소년기 가족의 갈등적인 가족관계의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류층 핵가족에서는 갈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갈등이 존재하며 이는 가족성원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관계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류층 가정에서의 청소년기 초기의 가족 역동에 대한 자료 제시와 청소년기 가족의 갈등적 부모-자녀 관계의 예방과 중재를 위해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재조명한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김경숙(1987).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논문집, 15, 9-40.
- 2) 김양희(1986). 한국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대한가정학회(1990). 아동학·가족학. 서울: 교문사.
- 5) 윤진, 최정훈(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 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1), 16-35.
- 6)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7) 정문자, 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과 대처전략 분석. 아동학회지, 15.
- 8) 진미정,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4.
- 9) 한남제(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10) Barber, B. K.(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11) Brooks-Gun, J. & Petersen, A. C.(1984). Problem in studying and defining pubertal ev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3), 181-195.
  - 12) Ellis-Schwabe, M. & Thornburg, H. D.(1986). Conflict area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0(1), 59-68.
  - 13) Gecas, V., & Seff, M. A.(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14) Griest, D. L., Forehand, R., Wells, K. C., & McMahon, R. J.(1980).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between nonclinic and behavior-problem clinic-referr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497-500.
  - 15) Hauser, S. T., Liebman, W., Houlihan, J., Powers, S. I., Jacobson, A. M., Noam, G.G., Weiss, B., & Follansbee, D.(1985). Family contexts of pubertal tim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4), 317-337.
  - 16) Hill, J. P., Holmbeck, G. N., Marlow, L., Green, T. M., & Lynch, M. E.(1985a). Menarcheal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grad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4), 301-317.
  - 17) Hill, J. P., Holmbeck, G. N., Marlow, L., Green, T. M., & Lynch, M. E.(1985b). Pubertal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families of seventh-grade boy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31-44.
  - 18)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19) Montemayor, R.(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20) Montemayor, R.(1986). Family variation in parent-adolescent storm and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1), 15-31.
  - 21) Petersen, A. C.(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22) Print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23) Savin-Williams, R. C. & Small, S. A.(1986). The timing of puberty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2-347.
  - 24) Silverberg, S. B. & Steinberg, L.(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6(3), 293-313.
  - 25) Silverberg, S. B. & Steinberg, L.(1990).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68-666.
  - 26) Stattin, H. & Klackenberg, G.(1992). Discordant family relations in infant families: Developmental tendencies over 18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940-956.
  - 27) Steinberg, L.(1987a).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51-460.
  - 28) Steinberg, L.(1987b). Recent research on the family at adolescence: The extent and nature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the Family*, 16(3), 191-198.
  - 29) Steinberg, L. D.(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s and pubertal 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22-128.
  - 30) Steinberg, L. D. & Hill, J. P.(1978).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age, the onset of puberty, and formal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6), 683-684.